

NEW Electropia를 향하여...



대한민국의 전력산업에 희망을 밝혀주는

[주]광명전기!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기획관리실 정보조사팀



www.km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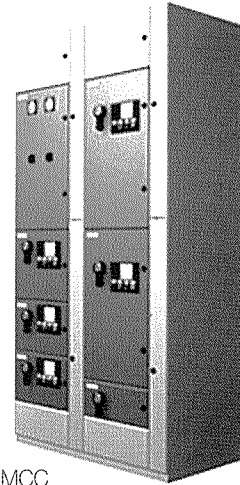
(주)광명전기(www.kmec.co.kr 대표이사 조광식)는 산업전반에 걸쳐 전쟁의 아픈 상흔이다 치유되기도 전인 1955년 7월에 중립동에서 산업기반 자체가 피폐하고 생산설비라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에 산업재건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경제재건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고자 창립되었다.

그 이후 기술력과 앞선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21세기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업의 미래 가치 확보”, “효율성 극대화 추구”를 목표로 끊임없는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한 전력기술 자립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03년도에는 430억원의 매출과 20여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으며, 올해에는 500억의 매출과 4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목표로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부채비율이 약 21%정도로 재정상태가 건전하며,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술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한마디로 광명전기는 미래가 보이는 회사다. 요즘 같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IMF시절에도 오히려 가스절연개폐장치(GIS) 단모선과 복모선을 완전 국산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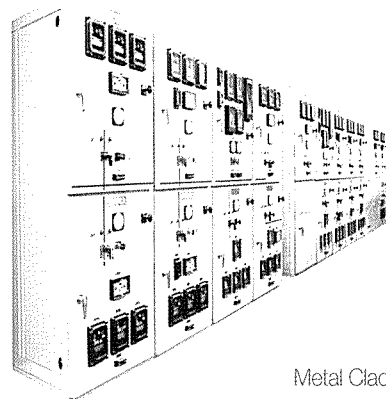
그 동안 핵심 부품을 독일의 SIMENS사로부터 수입하여 생산하였으나, 완전 국산화로 인하여



MCC

수익성 개선뿐만 아니라 새로운 ERP를 도입하여 자재 입고시간 및 생산기간을 단축하여 고객에게 보다 더 빠른 제품 공급이 가능케 하였다.

업계에서는 광명전기가 이처럼 업계에서 선두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로 꾸준한 제품 개발 및 개선에 노력과 직원들의 일치단결된 강한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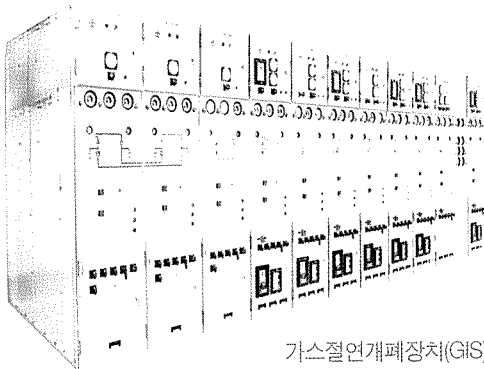
Metal Clad Switchgear

New Electropia 향하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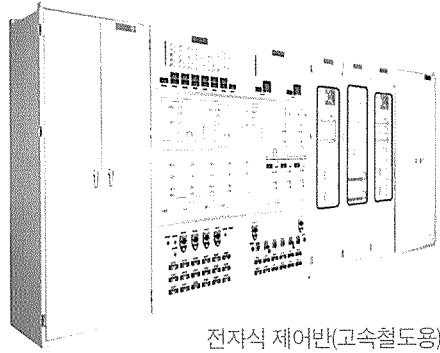
지와 신념을 들고 있다. 바로 이러한 노력들이 반영되어 2002년 5월에는 한국능률협회로부터 기업경영개선 우수 기업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1994년 업계 최초로 ISO9001을 인증 받아 시스템에 의한 경영을 시작한 이후 2002년도에는 핵심 사업인 가스절연개폐장치(GIS)를 완전 국산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주요 고객인 한국전력공사에 양질의 제품을 저가에 공급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켰다.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꾸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결과, 600V의 저압에서부터 25,800V까지의 특고압 배전반, 전동기 제어반(MCC), 보호계전기반, 부스덕트, 전력감시제어반 등을 전문적으로 주문 생산하고 있으며 주요 납품처는 주로 국가중요 기반 시설인 원자력발전소, 수화력 발전소, 석유화학 플랜트공장, 철도 및 지하철, 아파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전자식 제어반(고속철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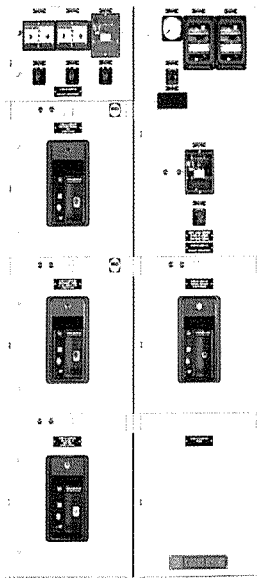
트, 대형 건물 등이며, 일본, 인도, 중국 등의 해외에도 수출하고 있다.

특히 한국형 원자로 1호인 울진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하여, 월성원자력발전소, 영광원자력발전소 및 여러 수화력발전소 등에 납품하였다. 그 외에도 잠실 롯데월드 호텔, 한국방송공사, 국제청, 산업은행, 예술의 전당, 용인 워터파크, 고속철도 시험선 구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교통센터, 포항제철과 광양제철소 등에 납품한 바 있으며, 이란 카룬댐, 말레이시아 제지공장, 중국, 아르헨티나, 일본 등의 해외에도 납품하였다.

이처럼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업계의 선두주자로 신뢰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철저한 고객 만족이다. 업종의 특성상 주문제작 납품이다 보니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철저한 A/S를 해주고,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고객이 부르면 달려가는 철저한 고

객만족의식으로,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라는 것을 항상 교육하고 있다. 또한 A/S만으로 끝나지 않고, 고객이 제품을 이해 할 때까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서비스정신이야말로 고객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고객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어려운 시절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과 협력 회사들은 그 동안 광명전기가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감이 있었기에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어려움을 함께 겪었으며, 또한 전 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고통을 분담하고 더욱 노력함으로써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법정관리를 탈피할 수 있었다.



원자력용 저압폐쇄배전반

사실 오늘날의 광명전기가 있기까지 적잖은 시련을 겪었고, 그 어려운 시기 때 마다 전 임직원이 하나로 합심하여 난관을 잘 견디어 내었다.

특히 신원그룹에 편입된 뒤 IMF를 맞이하여 계열사간 지급보증으로 법정관리까지 겪어야 하는

우여곡절 역사 속에서 광명전기는 고객들의 믿음을 밑바탕으로 기술개발, 경영혁신을 통하여 보다 멀리 높게 비상할 것이며, 이를 모든 고객이 지켜 볼 것이다. 앞으로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기술력 향상으로 전기 업계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우뚝 서게 하는데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